"왜 한국 학생들은 포화상태인 미국 유학만 고집하나요?"

100% 영어수업, 90%의 취업률, 50여 개 이상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카자흐스탄 랭킹 1위의 대학의 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나라인 카자흐스탄에서 중앙아시아의 리더를 양성해내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 방찬영 박사. 올해로 19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키멥KIMEP(Kazakhstan Institute of Management Economics and Strategic Research) 대학의 방찬영 총장에게 키멥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다. 신청 에디터 erin@naeil.com **사진 제공** KIMEP

지난 5월 2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공화국 궁전에서 열린 키멥 대학의 졸업식에는 졸업생, 학부모, 교직원, 알마티시 관계자 등 3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석현 중앙일보 · JTBC 회장이 국제관계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재학생들에게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베티나 에스페 부총장은 그 동안 홍회장이 교육, 소통,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관계 강화 분야에 기여했다며 학위 수여 이유를 밝혔다. 한국인이 카자흐스탄의 명문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 그 뒤에는 그 동안 카자흐스탄의 교육과 경제성장을 위해 20 여년을 바친 방찬영 총장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한국인,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되다

방찬영 총장은 1964년 미국 유학을 떠나 미국 UCLA와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산주의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쳤다. 아시아문제연구소장이 되어 소련을 오가며 여러 차례 세미나를 했고, 90년 6월 당시 소련 총리의 소개로 카자흐스탄 서기장이던 나자르바예프를 만났다. 91년 독립국가 카자흐스탄이 탄생된 후부터 4년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경제특보를 맡은 방총장은 카자흐스탄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사유화, 민영화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89년 당시 처음 카자흐스탄에 왔는데, 평생을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자율, 은행, 대출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본주의의 기초부터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전문가인 그의 조언과 정책 수립 덕분에 카자흐스탄은 독립 21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1천달러인 나라로 급성장하게 된다.

카자흐스탄 첫 사립 명문대학의 탄생

91년 4월, 방총장은 나자르바예프, 참모들과 '개혁 토론'을 했고, "대학을 세워 인재를 키우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지금의 키멥. 키멥은 설립 초기부터 카자흐스탄어와 러시아어가 아닌 영어를 공식어로 지정하고, 100% 영어수업을 도입해 미국식 커리큘럼을 지향했다. 당시 갓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시장경제체제를 이식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전제였기 때문. 전체 교수의 50% 이상을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자로 섭외했고, 카자흐스탄 내 국립대 교수의 12배를 상회하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했다. 재학생들의 국적도 다양하다. 키멥은 전세계 21개국 75개 대학과 국제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50여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CIS(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연합) 지역 최초의 서구식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키멥은 현재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 최고 수준의 학교로 발돋움했다. 방총장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대부분이 키멥을 찾아옵니다. 경영 자문과 인재 확보 때문이죠"라며 키멥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매년 배출되는 700여명의 졸업생들은 카자흐스탄의 정부 기관부터 P&G,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등의 글로벌 기업, 국제금융기관 등에 진출하며 약 90%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세계로 눈을 돌려라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방총장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다. 그는 한국의 학생들이 시야를 넓혀 해외로 진출하기를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왜 한국의 학생들은 포화 상태인 미국만 고집할까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카자흐스탄과 키멥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영어 · 러시아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도 될 수 있지요. 안정적이고 보장되어 있는 성공가도만을 찾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미개척된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갈고 닦아나가는 진취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찬영 총장 PROFILE

△1936년 황해도 출생
△1951년 1 · 4후퇴 때 월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경영학 석사
△1964년 도미, 아시아문제연구소장 역임
△1989년 카자흐스탄 방문
△1991~94년 카자흐 대통령 경제특보
△1992년 키멥 설립 자문
△1997년 카자흐 귀환, 키멥 인수
△2002년 키멥 사립대로 전환
△현 키멥(www.kimep.kz) 총장
△키멥 한국 담당 (정지예 팀장)
jeeyae.j.chung@gmail.com,
interadmis@kimep.kz

Committed to Excellence
KIMEP UNIVERSITY

KIMEP은 어떤 학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경제특보였던 한국인 방찬영 총장이 1992년 설립한 대학으로, 카자흐스탄 내 경영, 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이다. 카자흐스탄 내 최초로 미국식 학위 제도를 도입하였고, 50여 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과 교수진이 100% 영어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현재 국내 20개 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머스쿨, 편입 등의 다양한 경로로 키멥에서의 공부가 가능하다.

0611-키메브-3고.indd 1 2012.6.8 3:22:34 AM